

대구지역의 구곡문화와 그 특징*

정우락**

|| 차례 ||

- I. 입론의 기반
- II. 대구지역 구곡원림의 개관
- III. 대구지역 구곡문화의 특징
- IV. 남은 문제들

【국문초록】

본 연구는 대구지역의 구곡문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기획된 것이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대구의 구곡원림을 전반적으로 개관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기존의 보고에 의하면 대구지역의 구곡은 네 곳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모두 일곱 곳으로 본다. 본 논의를 통해 채준도의 <문암구곡>이 새롭게 발굴되었으며, 기존의 논의에서 다루지 않았던 도석규의 <서호병십곡>과 채항원의 <거연칠곡>을 포함시켜 함께 다루었다. 강을 중심으로 조성된 이들 구곡 역시 구곡문화사 속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작품들이기 때문이다.

대구지역 구곡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방성에 있다. 이 때문에 대구의 구곡문화는 주자를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정격형보다 이것을 창조적으로 변용하는 변격형이 더욱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도학주의에 입각한 구심력 역시 확보하고 있어, 구곡을 최근까지 조성하는 등 이 문화에 대한 현대적 계승의식도 강하다. 계승과 변용이 맞물린 이러한 현상은 대구 지역의 선비들이 전통을 계승하되 여기에 유연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기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5-KFR-1230006).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대구지역이 낙동강 연안에 위치하여, 좌우를 넘나들고 상하를 오르내리며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갔던 강안학(江岸學)적 역사 전통과도 일정한 관계가 있어 보인다.

주제어 : 대구지역, 구곡문화, 개관, 특징, 정격형, 변격형, 복합형, 개방성, 강안학, 낙동강 연안.

I. 입론의 기반

대구예술문화회관 경내에는 ‘상동 지식묘’가 전시되어 있다. 그 안내문에 의하면 수성들판에 수십 기가 신천을 따라 군락을 이루면서 분포하고 있었는데, 그 일부를 이곳으로 옮겨다 놓은 것이라 한다. 그런데 이 지식묘에 “棹歌巖”이라는 세 글자가 뚜렷하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乙丑春”이라 새겨져 있다. 조선시대에 누군가에 의해 이것이 새겨졌을 터인데, 새긴 연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통해 대구지역의 선비들이 주자의 <무이도가>를 얼마나 사랑하였으며, 지역 공간에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를 알 수 있다.

이 글은 대구지역의 구곡문화를 개관하고 이에 대한 특징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인문지리학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자연환경과 인문은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환경결정론의 일부이기도 하다. 이 이론은 자연환경, 이를테면 기후나 지형 등 인간이 성장하는 물리적 주변 환경이 문화형성에 주요한 인소(因素)가 된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역사 전통이나 기타 사회 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사회가 발전한다는 점을 부정하는 극단론을 펼치기도 한다.

환경결정론의 반대편에 존재하는 것이 자유의지론이다. 이것은 운명론이나 숙명론 등과 대극점에 위치한 비결정론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매우

신뢰한다. 자유의지론은 인간이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자아를 형성하며, 이 때문에 같은 상황을 인간 개인이 지니고 있는 내적 의지에 의해 서로 다른 시각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파악한다. 이러한 주장은 인간이 지닌 능력과 잠재성을 신뢰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환경결정론과 자유의지론이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 모두 유효하지만 양 극단에 서는 것은 위험하다. 이성을 가진 인간은 내적 의지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자연지리적 환경이나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의 인문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인간은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제반 환경을 때로는 극복하고, 때로는 적응하면서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다.

대구의 구곡문화는 환경결정론과 자유의지론을 염두에 두면서 논의되어야 한다. 대구는 동쪽으로는 경상북도 경산시, 서쪽으로는 경상북도 성주군과 고령군, 남쪽으로는 경상북도 청도군과 경상남도 창원군, 북쪽으로는 경상북도 칠곡군과 군위군 및 영천시와 접하고 있다. 분지적 지형으로, 북부 산지는 거대한 팔공산괴(八公山塊)를, 남부 산지는 비슬산괴(毘瑟山塊)와 용지산괴(龍池山塊)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남부와 북부의 산지 사이에 낙동강이 흐르고, 그 지류인 금호강(琴湖江), 신천(新川), 팔거천(八渠川) 등이 여기에 유입된다.

일찍이 주자는 자신이 은거했던 중국의 복건성 소재 무이산에 무이정사를 짓고, 계류를 따라 9.5km에 이르는 구곡원림을 조성하였다. 시냇가에는 36봉우리와 37암석이 절경을 이루었는데, 주자는 그 사이로 흐르는 물길을 따라 아홉 굽이를 설정하고 각 굽이마다 7연절구 한 수씩을 남겼다. 제1곡 승진동(升眞洞), 제2곡 옥녀봉(玉女峯), 제3곡 선기암(仙機岩), 제4곡 금계동(金雞洞), 제5곡 무이정사(武夷精舍), 제6곡 선장봉(仙掌峯), 제7곡 석당사(石唐寺), 제8곡 고루암(鼓樓岩), 제9곡 신촌시(新村市)가 그것이다. 주자의 <무이도가(武夷櫂歌)>¹⁾는 여기에 서시를 더해 도합 10수로

이루어져 있다.

주자학이 유입되면서 조선의 선비들은 주자의 무이구곡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용하였다. 구곡비평을 시행하며 주자의 <무이도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도 하고, 차운 구곡시를 지어 주자의 생각을 따르고자 하기도 했으며, 구곡원림(九曲園林)을 조성하며 주자처럼 살기를 희망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수입된 구곡도를 모사하여 무이산을 상상하기도 하고, 그 자신 혹은 선조가 설정한 구곡을 기념하며 자신의 새로운 구곡을 만들어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선의 구곡문화가 구축되었던 것이다.

조선의 선비들이 구곡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기도 했다. 첫째, 주자의 <무이도가>에 대한 이해를 개방적으로 하고 있었다. 주자의 <무이도가>를 ‘입도차제(入道次第)’나 ‘인물기흥(因物起興)’ 등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한시 형태는 물론이고 시조나 가사 등 국문시가로 창작하는 등 문학적 변용을 수행하기도 했다. 셋째, 주자와 마찬가지로 구곡원림을 경영하면서도 그 경영방식은 한국적 지형에 맞게 신축성이 있었다. 넷째, 조선의 선비들은 무이구곡도는 물론이고, 조선의 구곡도를 그리며 구곡문화를 다양하게 발전시켜 나갔다.²⁾

대구는 팔공산과 비슬산 등 거대한 산악을 주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는 자연스럽게 계곡이 발달해 있다. 그리고 동서로는 퇴계학과 남명학이 서로 만나고, 남북으로는 기호학과 영남학이 회통하는 강안학적 요소

1) 주자 <무이도가>의 정식 명칭은 <淳熙甲辰中春精舍閑居戲作武夷權歌十首呈諸同遊相與一笑>(『晦庵集』 卷9)이다. 이하 약칭하기로 한다.

2) 정우락, 『주자 무이구곡의 한국적 전개와 구곡원림의 인문학적 의미』, 『한국의 구곡 문화』, 울산대곡박물관, 2010.

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17세기 전반에 이르러 퇴계학과 남명학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한강(寒岡) 정구(鄭逵, 1543-1620)를 비롯하여 낙재(樂齋) 서사원(徐思遠, 1550-1615) 등 다량의 지역 선비들이 배출되면서, 대구는 유교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갔다.

이보다 앞서 대구지역에는 조선초기부터 상경종사(上京從仕) 하면서 대표적인 훈구파가 되었던 사가(四佳)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이 있었고, 사림파로서는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 1431-1492) 학단이 밀양이나 달성 등 인근에서 활약하고 있었다. 또한 대구지역 내에서는 퇴계의 학통을 잇는 계동(溪東) 전경창(全慶昌, 1532-1585)이 일련의 제자를 거느리고 강학활동을 하면서 대구 성리학의 발판을 닦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기반 하에 한강학(寒岡學)이 접속되면서 대구의 유학은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었다. 한강은 그 스스로가 구곡문화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일찍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나에게 이전부터 <구곡도(九曲圖)>가 있었는데, 이는 이 선생이 발문을 쓰신 것으로 이정존(李靜存)이 소장한 중국본의 모사품이다. 이 그림을 대하면 정말이지 이른바 시야에 가득 들어온 구름이며 안개가 정묘의 극치를 다하여 마치 귓전에 소리가 들리는 듯 황홀하다. 또 중국본 책자 속에서 무이산의 총도(總圖)와 서원도(書院圖)를 발견하였는데, 지난번 화산(花山; 안동)에 있을 때 우연히 화가를 만나 이것까지 아울러 『무이지』에 본떠 그려 넣게 하고 거기에 이 선생의 발문을 첨부하였다.³⁾

3) 鄭逵, 『寒岡集』 卷9, <書武夷志附退溪李先生跋李仲久家藏武夷九曲圖後>, “余舊有九曲圖, 卽李先生題跋李靜存所藏唐本之摹寫者也. 信乎所謂滿目雲烟, 精妙曲盡, 恍若耳邊之有聞矣. 又於唐本冊子中, 得總圖與書院圖, 頃在花山, 偶值畫手, 並令模入志中, 係以李先生跋文.”

이 글에 의하면 한강은 일찍이 이담(李湛, 1510-1575)이 소장하고 있었던 중국본의 모사품인 <구곡도>를 갖고 있었는데, 이 그림에는 퇴계의 발문이 붙어 있었다. 그는 안동부사 재임시절인 1607년에 그곳의 화가를 만나 『무이지』를 새롭게 편집하거나 책머리에 <구곡도>를 그려 넣고, <구곡도> 말미에 실려 있었던 퇴계의 발문 역시 실었다. 이를 통해 구곡문화에 대한 한강의 관심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 역시 <양화주부자무이구곡시운(仰和朱夫子武夷九曲詩韻)> 10수를 창작하여 무흘에 대한 구곡적 심의를 드러내기도 했다.⁴⁾ 우리는 여기서 퇴계와 한강을 거치면서 발생한 구곡문화에 대한 관심이 대구지역 구곡문화 형성에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영남의 구곡문화는 그 규모의 측면에서 전국을 압도한다. 이 가운데 대구지역의 구곡문화는 보고서의 형식으로 조사되고 연구된 바 있다. 보고서는 김문기 교수의 『대구의 구곡문화』에서 이루어졌고,⁵⁾ 연구는 백운용 선생의 『대구지역 구곡과 한강 정구』에 의해 이루어졌다.⁶⁾ 이들 연구에 의하면 대구의 구곡은 동구의 농연구곡(叢淵九曲)과 달성군의 운림(雲林)·수남(守南)·와룡산(臥龍山) 구곡 등 네 곳이 존재하며, 대체로 퇴계학통을 잇는 한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고, 입도차제의 제도적 경향을 지니면서 대구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한다.

이 논문은 김문기 교수의 조사보고서를 적극 활용하면서 대구의 구곡문

4) 정우락, 「한강 정구의 무흘 경영과 무흘구곡 정착과정」, 『한국학논집』 48,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2 참조.

5) 김문기, 『대구의 구곡문화』, 대구광역시·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4. 이 책에는 부록으로 <叢淵書堂記> 등 구곡 관련 자료를 실어놓고 있어 대구지역 구곡문화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6) 백운용, 「대구지역 九曲과 한강 정구」, 『퇴계학과 유교문화』 58, 경북대 퇴계연구소, 2016.

화를 새롭게 개관하고 그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문암구곡(門巖九曲)> 등 새로 발굴된 구곡이 있을 뿐만 아니라,⁷⁾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은 여타의 작품 역시 구곡문화사라는 범주 속에 충분히 편입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한국의 구곡문화 전체 속에서 대구의 구곡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구지역의 구곡문화가 갖는 의의나 위상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으로 본다.

II. 대구지역 구곡원림의 개관

대구는 북쪽의 팔공산, 남쪽의 비슬산과 대덕산, 서쪽의 와룡산에 둘러싸인 분지이다. 그 사이로 신천이 대구의 남에서 북으로 흘러 금호강에 합류한다. 영천을 지나온 금호강은 대구의 동촌 부근에서 문암천(門巖川)과 만나 다시 신천을 합류한 후, 대구광역시 달서구 파호동에서 낙동강 본류로 흘러든다. 구곡문화가 산과 물을 중심으로 형성된다는 측면에서 대구는 이러한 문화를 생성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었다고 하겠다. 특히 대구는 낙동강과 금호강을 끼고 있어, 이 지역 선비들이 이를 구곡문화 형성에 적극 활용하였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대구지역의 구곡문화는 팔공산과 비슬산 및 최정산, 그리고 와룡산 자락에 분포되어 있다. 현재의 행정구역으로는 대구시 동구와 달성군 일대에 해당한다. 그리고 금호강과 낙동강이 이 지역을 관통해 흐르고 있어, 대구 지역에서는 이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구곡문화가 전개된다. 이것은 구곡문화가 일반적으로 개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과 달리, 대구의 지리

7) <문암구곡>에 대한 정보는 대구향교 장의 구본욱 선생이 제공한 것이다.

적 환경뿐만 아니라 한강 정구와 낙재 서사원이 이들 강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를 염두에 두면서 현재까지 확인되는 대구지역의 구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순번	구곡명	설정자	구곡의 세부 명칭 ⁸⁾	소재지
1	西湖屏十曲	都錫珪 (1773-1837)	浮江亭-伊洛書堂-仙槎-伊江書院-可止巖-東山-臥龍山-銀杏亭-觀魚臺-泗水濱	금호강 하류 일대: 다사읍 - 사수동
2	聾淵九曲	崔孝述 (1786-1870)	白石 - 詠歸臺 - 鼓淵 - 聾淵 - 狎鷺洲 - 靜樂臺 - 兢臨臺 - 龜巖 - 龍門	용수천 상류 일대: 신무동 - 용수동
3	雲林九曲	禹成圭 (1830-1905)	龍山-魚臺-松亭-梧谷-江亭-淵齋-仙槎-鳳巖-泗陽書堂	낙동강 중류, 금호강 하류 일대: 사문진교 - 사수동
4	門巖九曲	蔡準道 (1834-1904)	畫巖-鶴巖-東山-毅訥-水永谷-道山-蠶頭-門巖-春嶺	동화천 상류 일대: 연경동 - 미대동
5	臥龍山九曲	申聖燮 (1882-1959)	泗水-松濤-海浪-龍頭-鶴林-溪月-白石灘-仙槎-晴川	금호강 하류 일대: 사수동 - 이곡동
6	居然七曲	蔡晃源 (1883-1971)	寒泉-高厓-杏亭-鶴鶴峰-丹山-典坪-東山	신천 상류 일대: 가창면 냉천리 - 단산리
7	守南九曲	미상	寒泉-興德-鶴鶴山-玉女峰-金谷-三山-鹿門-紫陽-白鹿	신천 상류 일대: 가창면 냉천리 - 우록리

위의 조사에서 보듯이 대구지역의 구곡은 넓게 보아 일곱 곳이고, 좁게 보아 다섯 곳이다. 도석규의 <서호병십곡(西湖屏十曲)>과 채항원의 <거연칠곡(居然七曲)>을 넓은 범위의 대구 구곡에 포함시킨 것은 구곡의 변격형으로 보아 무방하기 때문이다.⁹⁾ 이를 고려하면 <서호병십곡>과 <거

8) 구곡의 세부 명칭은 작자가 직접 제정한 것도 있고, 김문기 교수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작품의 내용을 고려해 만든 것도 있다. 여기서의 세부 명칭은 김문기 교수의 것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9) 조선조 선비들은 선을 중심으로 구곡의 문화공간을 만들고, 점을 중심으로 集景의 문화공간을 만들었다. 선은 주로 물길로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서는 정우락, 『조선시

연철곡>은 10곡과 7곡이라는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선비들의 일반적인 문화공간 만들기에 입각해 볼 때 구곡문화에 충분히 포함시켜 다룰 수 있다.

대구의 구곡문화는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보면 동구와 달성군에 집중되어 있지만, 구곡문화의 핵심 배경인 산천을 중심에 두고 보면 셋으로 나누어진다. 북쪽의 팔공산을 배경으로 조성된 구곡은 용수천 일대의 <농연구곡>과 동화천 일대의 <문암구곡>을 들 수 있고, 남쪽의 비슬산 내지 최정산을 배경으로 조성된 구곡은 신천 상류의 <거연철곡>과 <수남구곡>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서쪽의 와룡산 일대의 낙동강 및 금호강을 중심으로 조성된 구곡으로는 <서호병십곡>, <운림구곡>, <와룡산구곡>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설정된 일곱 곳의 구곡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석규의 <서호병십곡>에 대해서다. 이 작품은 작자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나,¹⁰⁾ 작품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선 소개해 두기로 한다. 잠정적이기는 하나 작자로 알려져 있는 도석규는 자가 우서(禹瑞) 혹은 회언(會彦), 호가 서호(西湖) 혹은 금남(錦南)으로 관향이 성주(星州)

대 선비들의 풍류방식과 문화공간 만들기, 『퇴계학논집』 15, 영남퇴계학연구원, 2014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10) 작자 문제는 최원관, 「다사향토사연구회(<http://cafe.daum.net/dasahistory>)」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의하면, <서호병십곡>이 도석규의 문집인 『錦南集』에 수록되지 않은 점, 성주도씨용호문중에서 발간한 『서재춘추』에 <서호병십곡>의 작자가 명시되지 않은 점, <서호병십곡> 제1곡의 기사와 어긋나는 점, 도석규 생존 시 부조정 터에는 河洛亭이 건립되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도석규가 작자일 수 없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제4곡 伊江書院에서는 “우리 선조께서 당년에 진리를 얻으셨네(吾祖當年見得眞).”라고 하고 있다. 이강서원이 서사원을 제향한 서원이며 ‘吾祖’라고 하고 있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작자가 서사원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잠정적이기는 하나 <서호병십곡>을 도씨 문중에서 『서재춘추』에서 소개하고 있는 점, 병풍으로 소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작자가 밝혀질 때까지 기존의 설을 따르기로 한다.

이다. 강고(江臯) 류심춘(柳尋春, 1762-1834)의 문하에 들어가 공부하였으며, 37세(1809년, 순조 9)에 증광시(增廣試)에서 2등을 하여 성균진사(成均進士)가 되었다. 그는 『가례편고(家禮便考)』, 『해동군원록(海東群源錄)』 등을 편찬(編纂)하였으며, 읍지에도 그의 행의(行誼)가 전해진다.

서호는 ‘서쪽 금호강’으로 낙동강과의 합류 지점에 이르면 넓어지는 모습에 호수 같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¹¹⁾ 이 작품은 서시가 없이 10곡으로 되어 있으니 9곡의 변격형이라 하겠다. 제1곡은 낙동강과 금호강의 합류지점에 있었던 부강정(浮江亭)이고, 제10곡은 한강의 만년 강학처인 사수빈(泗水濱)이다. 도석규는 여기서 윤대승(尹大承, 1553-?)과 이지화(李之華, 1588-1666)(1곡), 정구와 서사원(2곡), 최치원(3곡), 도성유 등 팔군자(6곡),¹²⁾ 제갈량(7곡), 정구(9곡, 10곡) 등을 떠올렸다. 특히 한강 정구에 대한 생각이 2곡, 9곡, 10곡에 두루 나타나 작자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게 했다.

둘째, 최효술의 <농연구곡>에 대해서다. 작자 최효술의 자는 치선(樞善), 호는 지현(止軒)으로 관향이 경주(慶州)이다. 한강의 제자인 대암(臺巖) 최동집(崔東集, 1586-1661)의 후손으로,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 1711-1781)의 벗인 백불암(百弗庵) 최흥원(崔興遠, 1705-1786)은 그의 5대손이다. 최효술은 최흥원의 증손으로 외할아버지 정종로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1860년(철종 11) 장릉참봉(莊陵參奉)에 임명되고, 그 뒤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을 거쳐 부호군(副護軍)에 이르렀다. 그는 시문도 두

11) 서호는 중국 항주의 서호를 연상하며 작명한 것은 물론이다. 한강 마포 일대를 서호라고 한 것도 같은 이치이다. 서호의 한국적 수용에 대해서는 김동준, 『한국한문학사에 표상된 중국 서호의 전개와 그 지평』, 한국고전연구 28, 한국고전연구학회, 2013에 자세하다.

12) 도씨 문중에서는 8군자가 “養直堂 都聖俞, 鋤齋 都汝俞, 洛陰 都慶俞, 翠厓 都應俞, 止巖 都愼修, 撝軒 都愼與, 竹軒 都愼徵, 石川 都爾望”를 의미한다고 했다.

루 남기고 성리학에도 조예가 깊었다. 이러한 학문적 경향은 동국문종 최치원을 통해 내려오는 문학적 전통과 ‘퇴계-한강-대암-백불암’으로 전해지는 이학적 전통을 통섭한 결과라 하겠다.

<농연구곡>은 최동집으로부터 유래한다. 최동집이 농연 가에 집을 짓고 은거한 이래, 최홍원이 1755년 농연정을 건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농연구곡>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¹³⁾ 그러나 그의 구곡시 존재여부는 알 수가 없다. 이후 증손 최효술이 구체적인 <농연구곡> 시를 창작한다. 그러나 이 <농연구곡>은 물을 거슬러 오르며 구곡을 설정하고 있어 경영의 측면에서는 주자를 따르고 있지만, 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자의 <무이도가> 시운을 따르지 않아 문학적 측면에서는 훨씬 개방적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이 <농연구곡>은 방산(方山) 이운정(李運楨, 1819-1893)에 의해 서시와 함께 주자의 시운을 따르며 정격화 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¹⁴⁾

셋째, 우성규의 <운림구곡>에 대해서다. 우성규의 자는 성석(聖錫), 호는 경재(景齋) 또는 경도재(景陶齋)로 관향이 단양(丹陽)이다. 그는 월곡(月谷) 우배선(禹拜善, 1569-1621)의 후손으로 달성(達城)에서 태어나 서울로 올라가 명류(名流)들과 두루 사귀면서 학문을 닦았다. 내직으로는 선공감역(繕工監役)과 감조관(監造官) 등을 역임하였고, 외직으로는 현풍·영덕·예안의 현감, 임천·단양의 군수, 영월·칠곡의 부사를 지냈다. ‘도산을 경모한다’고 표방한 그의 호에서 볼 수 있듯이 우성규는 퇴계를 존신

13) 『百弗庵先生言行錄』卷1 <年譜>, “龔淵亭成: 亭凡三架四楹, 東二間爲齋, 曰洗心, 西一間爲軒, 曰濯清, 合而扁之, 曰龔淵書堂, 以待學者之羣居, 沿溪上下, 得澹淵九曲, 隨處題品, 以誌其勝.”

14) 이운정의 <謹次龔淵亭九曲韻>은 최효술의 시운과 전혀 다르다. 이 점에서 <농연구곡>이라는 다른 작품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선 누구의 작품인지 알 수가 없다.

하였으며, 만년에는 ‘인산정사(仁山精舍)’를 짓고 강학하였다. 송병선과 최익현 등 노론의 후예들과도 폭넓은 교유를 했다.

<운림구곡>은 사문진 나루의 용산에서 시작하여 한강의 만년 강학지인 사양정사에서 마무리된다. 사문진은 화원에서 고령의 다산을 건너다니는 나루인데, 금호강 일대에 설정한 구곡 가운데 가장 길어 약 16km에 해당한다. 우성규는 이 작품의 서시에서 “하늘이 운림을 보호해서 참으로 신령스럽다.”¹⁵⁾라고 하면서 ‘운림’을 특기하고 있다. 운림은 바로 옷갓[上枝]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한강 정구와 석담 이윤우, 그리고 송암(松巖) 이원경(李遠慶)을 제향한 사양서당이 소재하므로, 그가 물을 거슬러 오르며 만나고자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바로 알게 된다. 이 운림구곡은 운주(雲州) 이원석(李元奭)에 의해 <운림구곡차무이도가운(雲林九曲次武夷權歌韻)>이라는 작품으로 차운되기도 했다.

넷째, 채준도의 <문암구곡>에 대해서다. 채준도의 자는 윤경(允卿), 호는 석문(石門)인데, 본관은 인천(仁川)이다. 달성(達城)에서 태어나 지헌(止軒) 최효술(崔孝述)의 문하에서 수업하면서 자연스럽게 구곡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 그는 평생 동안 『주자전서(朱子全書)』를 애독하였다고 하며, 만년에 팔공산 염문암(拈門巖) 산수를 사랑하여 백居易(白居易, 772-846)의 향산고사를 모방, 동지(同志)들과 향산구로회(香山九老會)를 조직하고 도의를 강마하였다고 한다. 여기에 참여한 아홉 명은 채준도를 비롯한 최운경(崔雲慶), 채정식(蔡正植), 도운곤(都允坤), 곽종태(郭鍾泰), 최완술(崔完述), 곽치일(郭致一), 서우곤(徐宇坤), 서영곤(徐泳坤)이다.

15) 禹成圭, 『景陶齋集』卷2, <用武夷權歌韻賦雲林九曲>, “天護雲林儘異靈, 山明曲曲水澄清.”

<문암구곡>은 연경서원이 있었던 제1곡 화암에서 시작하여 문암천이라 불렀던 지금의 동화천을 거슬러 올라가, 대구시 동구 미대 마을의 안산에 위치하는 문암(門巖)을 거쳐 제9곡 용등에 이른다. 연경서원에 퇴계를 비롯하여 한강 정구, 우복 정경세가 제향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여기에 기반한 도학이 결국 자신이 은거하고 있는 문암에 이르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이 작품은 주자 <무이도가>의 체제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같은 향산구곡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겸산(兼山) 서영곤(徐永坤, 1831-1913)이 화운을 하여 <화채운경준도문암구곡운(和菜允卿準道門巖九曲韻)>을 남기기도 했다.

다섯째, 신성섭의 <와룡산구곡>에 대해서다. 신성섭의 자는 명숙(明淑), 호는 학암(鶴菴)이다. 관향은 평산(平山)으로 고려의 개국공신 신승겸(申崇謙)이 후손이다. 공산(恭山) 송준필(宋浚弼, 1869-1943)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대학』을 통해 득력하였다고 한다. 그는 용모가 중후하고 덕성이 밝았으며, 풍채가 준수하고 기국이 광대하였다고 한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금수의 발길이 나라를 어지럽히지만 강토를 지킬 수가 없어 두문불출한다’고 하면서, 동지들과 산수에 뜻을 두고 거기에 침잠했다. 만년에는 후학을 양성하고 집안의 자제들을 훈육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와룡산구곡>은 제1곡이 ‘사양’으로 한강 정구가 강학하던 사양정사가 있는 곳이며, 제9곡이 ‘칭천’으로 와룡산의 끝자락에 해당한다. 이 구곡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줄기를 따라 내려가면서 설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대구의 대표적인 변격형 구곡이라 하겠다. 그는 서사에서 “와룡산 위에 선령이 살고 있어, 그 아래로 금호강이 굽이굽이 맑구나.”¹⁶⁾

16) 申聖燮, 『鶴菴集』 卷1, <臥龍山九曲歌>, “臥龍山上住仙靈, 下有琴湖曲曲清.”

라고 하여, 특히 와룡산의 신령스러움을 드러냈다. 일곡에서 ‘원두(源頭)’를 제시하면서 한강 정구를 도체로 삼아 이것이 후세에 계승되기를 희망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그가 순류를 따라 구곡을 설정한 이유를 비로소 알 수 있다.

여섯째, 채황원의 <거연칠곡>에 대해서다. 채황원은 자가 사중(士重), 호가 시헌(時軒)으로 관향이 인천(仁川)이다. 그는 가학을 통해 공부했는데, 원래 선조 때부터 세거하던 팔공산 미대(美岱)에 살았지만 중년에 동구 내동으로 이주하여 야산정사(冶山精舍)를 짓고 그곳에서 강학을 시작했다. ‘야산’이라 칭한 것은 정사를 세운 곳이 예전에 야로(冶爐)였기 때문이라 하였는데, 이를 통해 은일의 뜻을 보이교자 했다. 채황원의 시대가 일제강점기와 6.25동란을 거치는 민족 시련기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그의 지취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거연칠곡>은 가창의 냉천에 살았던 벗 검암(儉菴) 전동식(全東植, 1891-1975)이 세운 정자인 거연정(居然亭)을 중심으로 설정되었다. 달성군 가창면 냉천 1리 소재의 제1곡 한천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창면 단산리의 전평들을 지나 제7곡 동산에 이른다. 7곡으로 줄어들고 오연절구로 창작되어 있다는 점에서 변격형 구곡이다. 그러나 제1곡에서 주자의 ‘한천정사’를 용사하며 원류를 생각하였고, 제7곡에서 “칠곡이라 동산 아래, 시내를 건너서 땅이 특별하게 열리네.”¹⁷⁾라고 하며 주자 <무이도가> 제9곡의 의상을 빌려왔다. 따라서 이 작품은 주자의 <무이도가>를 의식하며 창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일곱째, 작자 미상의 <수남구곡>에 대해서다. 수남구곡은 『달성군지』(1992, 달성군지편찬위원회)에 처음 나타난다.¹⁸⁾ 현재로서는 설정자를 알

17) 蔡晃源, 『時軒集』 卷1, <題居然亭>, “七曲東山下, 隔溪地別開.”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작품도 전하지 않는다. 구전을 통해 내려오던 것을 군지의 편찬위원회에서 수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연구의 범위를 조선시대로 한정하면 심각한 결격사유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거연칠곡>이나 <와룡산구곡>도 최근세의 것이며, 오히려 이를 통해 주자의 구곡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려는 지역 선비의 의지가 돋보인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확보하고 있다. <수남구곡>이 설정되어 있는 우록리 일대는 지명 자체가 주자학을 담보한 것이 많아 이 지역에 구곡문화가 깊이 들어와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수남구곡>은 행정리(제2곡 흥덕) 은행나무 아래에 행단(杏壇)을 건립하고 시회(詩會)를 열 때, 가창의 다른 이름인 수남 일대가 주자의 무이구곡과 닮았다고 해서 설정한 것이라 한다. 제1곡 ‘한천’도 주자의 ‘한천정사(寒泉精舍)’에서 딴 것이고, 인근에 있었던 ‘운곡(雲谷)’도 주자가 회암초당(晦庵草堂)을 짓고 강학한 운곡에서 따온 것이다. 이 때문에 임재(臨齋) 서찬규(徐贊奎, 1825-1905)는 “무릇 여기 몇 곳은 모두 깊이 은거하면서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선비가 소요하며 영원히 떠나 알리지 않을 만한 곳이니 한천(寒泉)과 운곡(雲谷)이 그것이다. 두 곳의 이름이 옛날과 부합되니 그 또한 우연한 것이 아니다.”¹⁹⁾라고 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제4곡 ‘옥녀봉’, 제8곡 ‘자양’, 제9곡 ‘백록’은 모두 주자와 깊은 관련이 있는 지명들이다. 이로 보아 <수남구곡>은 거의 주자학으로 무장한 것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우리는 대구지역 구곡원림을 개관하였다. 엄밀한 의미에서 대구의 구곡원림은 모두 다섯이지만, 구곡원림이 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곱 곳이 된다. 팔공산에는 용수천과 동화천 상류

18) 달성군지편찬위원회, 『달성군지』, 달성군, 1992.

19) 徐贊奎, 『臨齋集』 卷13, <歸隱洞記>, “凡此數地, 皆深藏不市之士, 所可盤桓而永矢不告者, 而寒泉也, 雲谷也, 兩地名之符契於古, 其亦不偶然者.”

에 조성된 <농연구곡>과 <문암구곡>이 있고, 비슬산 및 최정산에는 신천 상류에 조성된 <거연칠곡>과 <수남구곡>이 있다. 그리고 대구에는 낙동강과 금호강이 지나가고 있어, 이 두 강의 합수지점을 기반으로 하여 <서호병십곡>, <와룡산구곡>, <운림구곡>이 조성되었다.²⁰⁾ 이처럼 대구의 구곡원림은 낙동강과 금호강에 기반을 둔 것과 팔공산과 비슬산에 기반을 둔 것으로 양분되어 있다. 이는 대구의 자연지리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라 할 것이다.

Ⅲ. 대구지역 구곡문화의 특징

주자는 1183년 무이구곡의 제5곡에 무이정사(武夷精舍)를 짓고 <무이정사잡영(武夷精舍雜詠)>을 썼으며, 이듬해 <무이구곡(武夷九曲)>을 설정한다. <무이도가>는 복건성(福建省) 무이산(武夷山) 계곡의 아홉 구비[九曲] 경치를 읊은 것이다. 여기서 주자는 무이산 계류를 거슬러 오르며 9곡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서시를 포함하여 아홉 수의 칠언절구를 지었다. 또한 『무이지』를 지어 무이구곡 주변의 문화를 수렴하고자 했고, <무이구곡도>를 그려 무이산과 <무이구곡>의 이름다움을 시각화하기도 했다.

주자학이 유입되면서 조선의 주자 성리학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단계를 넘어서 다양하게 토착화해가는 과정을 밟는다. 계승과 변용이라는 논리를 적용시키면서 조선의 구곡문화를 만들어간 것이다. ‘계승’은 주자와 마찬가지로 계류를 거슬러 오르며 아홉 구비를 설정한 후, 서시를 포함하

20) 이밖에도 최정산 계곡을 기반으로 설정된 <最頂九曲>이 있다. 이 구곡은 최정산 기슭의 정대 앞을 흐르는 계곡에 설정된 것으로 현재로서는 작자와 시가의 구체상을 알 수가 없다.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찾아보아야 할 일이다.

여 10수의 구곡시를 칠언절구로 창작하는 것이다. 이를 우리는 정격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격형은 경영 방식이나 문학 창작의 측면에서 주자의 <무이도가>를 그대로 모방한다.

‘변용’은 크게 둘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경영 방식의 측면에서, (1) 내려가며 설정하기도 하고, (2) 두 계곡에 함께 설정하기도 하며, (3) 곡의 수를 줄이거나 늘이기도 한다. 둘째, 문학 창작의 측면에서, (1) 칠언절구로 짓되 주자의 시운을 따르지 않거나, (2) 오언절구나 국문시가 등 다른 시체(詩體)를 사용하거나, (3) 서시 없이 아홉 수로만 창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우리는 변격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자의 <무이도가>와 많은 부분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대구의 구곡문화 역시 정격형과 변격형이 동시에 나타난다. 정격형은 우선 규규의 <운림구곡>²¹⁾과 채준도의 <문암구곡>이다. 이는 모두 경영 방식의 측면에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며 아홉 구비를 설정하였고, 문학 창작의 측면에서도 서시를 포함한 10수의 칠언절구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운 역시 주자 <무이도가>와 동일하다. 이들은 주자의 세계관을 그대로 따르고자 했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대구의 선비들은 주자학적 구심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계승의 측면을 염두에 두면서 대구 구곡문화의 특징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한강 정구를 종사(宗師)로 모시고자 하는 성격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일찍이 한강은 무휼정사를 짓고, 『무이지』를 개편하면서 주자의 <무이도가>에 대한 차운시를 남기는 등 구곡문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21) <운림구곡>이 경영이나 작시의 방식은 정격형이지만, 구곡에 대한 명명은 집경식의 형태를 따르고 있어 특이하다. 즉 제9곡인 泗陽書堂을 제외하면, 龍山朝霞, 魚臺春水, 松亭晚風, 梧谷霽月, 江亭石楫, 淵齋釣磯, 鶴舞春雲, 鳳巖朝陽 등 ‘지명+풍치’의 명명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70세가 되던 해에 노곡(蘆谷)으로 이주하고, 72세에 사빈(泗濱)으로 거주지를 다시 옮겼다. 이 당시 대구의 선비들은 그의 문하에 출입하면서 활발하게 강학활동을 하였다. 여기에 대구의 선비 대암(臺巖) 최동집(崔東集)도 있었다. 그는 명나라가 망하자 팔공산 부인동에 농연정을 짓고 산수를 소요하게 된다. 여기에 근거하여 그의 후손들, 특히 최동집의 5대손 최홍원은 농연정을 증건하면서 정자 주변에 구곡을 설정해 이름을 짓고, 증손 최효술은 <농연구곡>이라는 작품을 창작하며 선조의 구곡문화를 계승해갔다.

한강이 사수동에서 강학활동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대구지역 선비들은 한강 자체가 대구 유학의 원두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우성규는 <운림구곡> 제9곡 '사양서당'에서 “강옹(岡翁)과 담로(潭老)의 향기 남은 이 땅에는, 밝고 밝은 하나의 이치가 고요 속에 빛나네.”²²⁾라고 하였다. 여기서 ‘강옹’은 한강 정구이고 ‘담로’는 그의 제자 석담 이운우다. 그리고 신성섭은 <와룡산구곡>의 제1곡 ‘사수’에서 “일곡이라 원두에서 한 배에 오르니, 쌍쌍의 해오라기 긴 내에 내려왔네.”²³⁾라 하면서 한강을 ‘원두’로 인식하였다.

도석규의 <서호병십곡>에서는 한강이 더욱 다양하게 제시된다. 제2곡 ‘이락정’에서는 “이곡이라 배가 이락정에 이르니, 모한당(慕寒堂)과 미락재(彌樂齋)가 단청을 하였네.”²⁴⁾라 하면서 한강과 그의 제자 낙재를 떠올리고, 한강이 소요하던 제9곡 ‘관어대’에서는 그를 그리워하면서 “물고기를 보며 관어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니, 선생이 가신 뒤에 찾은 것이 가장 한스

22) 禹成圭, 『景陶齋集』卷2, <用武夷權歌韻賦雲林九曲>, “岡翁潭老遺芬地, 一理昭昭靜裏天.”

23) 申聖燮, 『鶴菴集』卷1, <臥龍山九曲歌>, “一曲源頭上一船, 雙雙飛鷺下長川.”

24) 都錫珪, <西湖屏十曲>(『鋤齋春秋』), “二曲船臨伊洛亭, 慕寒彌樂畫丹青.”

럽네.”²⁵⁾라고 하였다. 그리고 제10곡 ‘사수빈’에서는 “술개 날고 물고기 뛰는 활발한 경계에 천기가 안정되니, 완전히 그 가운데 성을 이는 사람 있네.”²⁶⁾라고 하면서 한강을 천리와 합치시켰다. 이밖에도 채준도는 <문암구곡>에서 제1곡을 ‘화암’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연경서원은 바로 한강을 제향하고 있었던 곳이다.

둘째, 대구의 구곡문화는 도학사상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곡문화의 수용 자체가 도학과 관련이 있지만, 낙동강과 금호강이 있는 대구지역은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하다. 지역 선비들은 낙동강을 중국의 낙수(洛水)로, 금호강을 중국의 이천(伊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곳은 정호(程顥)나 정이(程頤) 등 송대 성리학자들과 관련된 지명이니, 대구의 선비들은 이를 통해 도통을 상상할 수 있었다. 대구의 대표적인 도학자 한강 정구와 낙재 서사원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이락서당(伊洛書堂)을 구곡의 주요 지점으로 선택한 것도 모두 그러한 이유에서였다.

서찬규(徐贊奎, 1825-1905)는 상화대 앞에서 뱃놀이를 하며 시를 지은 적이 있다. 그는 여기서, “이수(伊水)와 낙강(洛江)이 사수(泗洙)와 접하고 있으니, 자나 깨나 선현을 그리워한다네. 예전에 도를 닦고 유상하던 곳, 천년토록 그 이름 향기롭구나.”²⁷⁾라고 하였다. 사수가 곡부에 있는 물 이름이니 공자의 학문을 의미하고, 대구 사수동에 한강이 사양정사를 지어 놓고 강학했다는 점에서 유학의 근원인 공자를 연상시킬 수 있었다. 이 때 문에 <서호병십곡>, <운림구곡>, <와룡산구곡>에서는 사수가 이락으로

25) 都錫珪, <西湖屏十曲>(『鋤齋春秋』), “觀魚不達觀魚理, 最恨先生去後來.”

26) 都錫珪, <西湖屏十曲>(『鋤齋春秋』), “翔鱗活潑天機定, 宛在中央知性人.”

27) 徐贊奎, 『臨齋集』卷1, <與禹聖錫成圭李器汝種杞諸人, 舟遊洛江賞花臺, 會者八十餘人, 武夷九曲詩分韻, 得荒字.>, “伊洛接泗洙, 寤寐遊羹牆. 前修遊賞地, 千載姓名香.”

흐르거나, 이락에서 시수로 그 연원을 찾아 거슬러 오르게 하였던 것이다. 모두 도학의 연원을 찾기 위함이었다.

셋째, 대구의 구곡문화는 근세에 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작자 논란이 있는 <서호병십곡>을 제외한다면, 최홍원이 설정한 ‘농연구곡’이 대구 최초의 구곡이다. 그러나 최홍원은 구곡에 대한 명명을 했을 뿐 작품을 남기지 않았으므로, 증손 최효술이 <농연구곡>이라는 작품을 지어 이를 현실화한다. 우성규의 <운림구곡>, 채준도의 <문암구곡>, 신성섭의 <외룡산구곡>, 채황원의 <거연칠곡>은 19세기 말 혹은 20세기 중후반기에 창작된 것이니 최근의 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구의 구곡문화는 근세에 주로 형성되었고, <수남구곡>이 실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근세의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대구지역의 구곡문화가 주로 근세에 이루어진 까닭은 무엇일까? 이것은 한말 혹은 국권상실기를 맞아 주자학을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것과 일정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유학전통을 강조하면서 이로써 국난을 극복하고자 했던 유가 지식인이 이 지역에 많이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신성섭은 <외룡산구곡>에서 물을 따라 내려가며 구곡을 설정하여 경영 방식의 측면에서는 변격형이지만 문학 창작의 측면에서는 정격형이다. 이것은 주자학적 선비정신이 물결의 흐름처럼 후대로 계승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주자학적 구심력을 강고히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경영 방식과 문학 창작의 측면에서 상이하게 구현된 것이라 하겠다.

넷째, 대구의 구곡문화는 변격형이 훨씬 우세하다는 점이다. 우선 물을 따라 내려가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신성섭의 <외룡산구곡>이 그것이다. 이 작품은 서시를 포함하여 10수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자의 시운을 밝고 있지만 물을 따라 내려가면서 구곡이 설정되어 있다. 제1곡인 북구 사수동의 ‘사수(泗水)’는 물의 근원이자 진리의 근원인 원두에 해당

하고, 제9곡인 다시읍 매곡리의 ‘청천(晴川)’은 주자가 <무이도가> 제1곡에서 제시하였던 ‘청천’ 바로 그것이다. 주자와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와룡산 구곡을 경영하면서도, 그 지향점은 동일하게 하였다.

대구의 구곡은 7곡으로 줄어들기도 하고, 10곡으로 늘어나기도 한다. 7곡으로 줄어든 것은 채황원의 <거연칠곡>이고 10곡으로 늘어난 것은 도석규의 <서호병십곡>이다. 조선조 선비들이 문화공간을 만들 때 선을 중심으로 구곡을 설정하였던 바, 곡의 수는 유동적이었다. 손재(損齋) 남한조(南漢朝, 1744-1809)가 경영한 문경의 <선유칠곡(仙遊七曲)>과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 1711-1781)이 경영한 안동 소호리의 <고산칠곡(高山七曲)>, 와은(臥隱) 장위항(張緯恒, 1678-1747)이 경영한 영주 문수면의 <무도칠곡(茂島七曲)>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문학적 측면에서도 변격형은 다수 발견된다. 우선 최효술의 <농연구곡>은 칠언절구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서시가 없고 주자 <무이도가>의 시운도 따르지 않았다. 이는 방산 이운정에 의해 다시 정격형 구곡으로 정비된다. 도석규의 <서호병십곡>도 칠언절구로 되어 있지만 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자의 <무이도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창작되었다. 가장 파격을 이루는 것은 <거연칠곡>이다. ‘한천’ 등 지명은 주자학에 입각해 있지만, 오언절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구의 구곡문화는 문학적 측면에서 대단히 자유롭게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다.

다섯째, 대구의 구곡문화는 복합형도 나타난다는 점이다. 복합형은 구곡 내에 구곡이 다시 조성된 ‘곡내곡(曲內曲)’의 구조를 우선 들 수 있다. 정격형 구곡인 우성규의 <운림구곡>은 사문전에서 출발하여 사수동에 이르는 구간이다. 지점을 조금 달리하지만, 이 구곡 안에 도석규의 <서호병십곡>과 신성섭의 <와룡산구곡>이 존재한다. ‘사수빈’, ‘사양서당’, ‘사수’처럼 용어는 약간씩 달리하지만, 이들은 모두 한강 정구의 만년 강학지인 사

수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강서원’과 ‘선사’, ‘이락서당’과 ‘연재’, ‘부강정’과 ‘강정’ 등 동일한 지역이 거듭 나타나며 곡내곡의 복합형 구곡문화를 형성하였다.

개별 구곡에 따른 집경시를 제시하는 ‘곡중경(曲中景)’의 구조를 갖추기도 했다. 조선조 선비들은 선을 중심으로 구곡을 경영하기도 했지만, 점을 중심으로 한 집경시를 즐겨 창작하였다. 이 둘이 맞물리면서 복합형 구곡문화가 생성된다. <농연구곡>의 경우 동계(東溪) 최주진(崔周鎭)이 농연정을 중심으로 <농연십경(農淵十景)>을 짓고, <운림구곡>의 경우 용산을 중심으로 노암(魯菴) 우하교(禹夏教)가 <상화대십경(常花臺十景)>을 창작했다. 이것은 서거정의 <달성십경>, 신성섭의 <대구팔경>, 서석보(徐錫輔)의 <고산서당팔경> 등과 맞물리면서 대구의 문화경관을 더욱 다채롭게 하였다.

여섯째, 대구지역의 구곡문화에도 7곡에서 9곡으로 성장하는 확장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7곡이 9곡으로 확장되는 현상은 구곡문화에서 흔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예가 없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외재(畏齋) 정태진(丁泰鎭 1876-1956)이 남한조의 <선유동칠곡>에서 제1곡 옥하대(玉霞臺)와 9곡 옥석대(玉鳥臺)를 더하여 <선유동구곡>으로 확장하거나, 와은(臥隱) 장위항(張緯恒, 1678-1747)이 <무도칠곡(茂島七曲)>을 지은 후 이를 다시 <무도구곡(茂島九曲)>으로 확장한 것이 그것이다.

대구지역에는 7곡에서 9곡으로 확장된 곳이 있다. 방향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거연칠곡>이 <수남구곡>으로 확장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제1곡이 달성군 가창면 냉천 1리 소재의 ‘한천’이라는 점에서 시작을 같이 한다. 그러나 거연칠곡은 단산리 쪽으로, 수남구곡은 우록리 쪽으로 조성되어 들은 서로 방향을 달리한다. <수남구곡>은 7곡이 9곡으로 확대된다는 측면에서는 <무도구곡>, <선유동구곡>과 같지만 제3곡 ‘척령산’

부터 방향을 달리한다는 측면에서 특이하다. 구곡으로의 확장은 모하당(慕夏堂) 김충선(金忠善, 1571-1642)을 제향한 녹동서원과 그 주변의 유교문화 경관이 주자의 뜻에 더욱 부합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대구지역 구곡문화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개방성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대구의 구곡문화는 주자를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정격형보다 이것을 창조적으로 변용하는 변격형이 더욱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도학주의에 입각한 구심력 역시 확보하고 있어 최근까지 구곡을 조성하는 등 구곡문화의 현대적 계승의식도 강하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을 유지하되 여기에 유연한 자세를 취하려 했던 대구지역 선비들의 성향과 맞물려 있다. 이 지역이 지리적으로 낙동강 연안에 위치하여, 좌우를 넘나들고 상하를 오르내리면서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여기서 대구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지역성의 한 단면을 본다.

IV. 남은 문제들

본 연구는 대구의 구곡문화를 개관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특징을 탐구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대구지역의 구곡문화는 팔공산과 비슬산 및 최정산, 그리고 와룡산 자락에 분포되어 있다. 현재의 행정구역으로는 대구시 동구와 달성군 일대에 해당한다. 그리고 금호강과 낙동강이 이 지역을 관통하며 흐르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하여 대구의 구곡문화가 전개되기도 했다. 구곡문화가 일반적으로 개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과 달리, 대구의 지리적 환경은 강을 중심으로 하고, 한강 정구과 낙재 서사원이 이들 강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대구지역의 구곡은 최효술의 <농연구곡>, 신성섭의 <와룡산구곡>, 우성규의 <운림구곡>, 작자 미상의 <수남구곡> 등 네 곳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구지역의 구곡을 도합 일곱 곳으로 본다. 채준도의 <문암구곡>이 본고를 통해 새롭게 발굴되었으며, 기존에 논의에서 다루지 않았던 채황원의 <거연칠곡>과 도석규의 <서호병십곡>도 여기에 포함시켜 다루었기 때문이다. 이들 구곡 역시 구곡문화사 속에서 충분히 구곡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일곱 곳에서 생성된 대구지역의 구곡문화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한강 정구를 종사(宗師)로 모시고자 하는 성격이 뚜렷하다는 점, 도학사상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 근세에 주로 이루어졌다는 점, 성격형보다 변격형이 훨씬 우세하다는 점, 구곡 내에 구곡이 다시 조성된 ‘곡내곡(曲內曲)’과 개별 구곡을 중심으로 경관을 다시 제시하는 ‘곡중경(曲中景)’이 등장한다는 점, 7곡에서 9곡으로 성장하는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구지역의 구곡문화가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여기에 매우 유연한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제 대구 구곡문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 남은 문제를 검토해보기로 하자. 첫째, 대구지역 한강학파의 구곡문화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요청된다. 대구지역의 구곡문화가 한강학파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일찍이 한강은 서사원에게 편지하여 『무이지(武夷志)』 보기를 바라기도 하고, 서사원은 한강에게 『무이지』를 베껴 올리기도 한다. 나아가 서사선(徐思選)의 경우는, <무이구곡도>라는 장편시를 지어, “나 또한 이를 얻어 당중(堂中)에 걸어두니, 산수 사랑으로 든 깊은 병이 문득 낫는 줄 알겠구나. 한 번 탄식하고 또 탄식하고 세 번을 탄식하니, 당시에 친히 따르지 못함이 한스럽구나.”²⁸⁾라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정을 통해 우리는 한강학파가 지녔던 구곡문화에 대한 관심의 일단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자료의 발굴과 정확한 이해가 절실하게 요청된다. 대구의 구곡은 지금까지 발굴된 일곱 곳 외에도 더욱 풍부하게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앞서 언급된 <최정구곡(最頂九曲)>이다. 정대 앞으로 지나는 용계천에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 이 구곡은, 신천의 상류이기는 하나 <거연칠곡>이나 <수남구곡>과는 방향을 전혀 달리하고 있다. 또한 <수남구곡>과 <서호병십곡>의 작자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본고에서 이 둘을 적극적으로 다루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작자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셋째, 정확한 세부 명칭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채준도의 <문암구곡>은 ‘화암(畫巖)-휴암(鶴巖)-동산(東山)-의눌(毅訥)-수영곡(水永谷)-도산(道山)-잠두(蠶頭)-문암(門巖)-용등(春磴)’으로 구곡의 세부 명칭이 구체화되어 있다. 이 작품은 작자 자신이 이를 제시하고 있어 의의가 없지만, 여타의 작품은 사정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예컨대, 최효술의 <농연구곡>과 신성섭의 <외룡산구곡> 등은 구곡에 대한 세부 명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물론 채황원의 <거연칠곡>처럼 “일곡한천수(一曲寒泉水)”, “오곡단산리(五曲丹山裏)” 등 작품 속에서 그 명칭이 명시화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넷째, 구곡에 대한 장소 비정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구곡문화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은 간단하지가 않다. 가장 확실한 장소 비정은 각자(刻字)의 존재 여부이다. 예컨대, 성주 <무흘구곡>의 ‘입암(立巖)’이나 문경 <선유동구곡>의 ‘옥석대(玉鳥臺)’와 같이 각자가 존재할 경우 장소 비정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대구의 구곡은 <거연칠곡>의 제1곡 ‘한

28) 徐思選, 『東臯集』卷3, <武夷九曲圖>, “我亦得之垂堂中, 頓覺山水膏肓醫. 一歎又歎三歎息, 當年恨不親追隨.”

천(寒泉)’의 경우를 제외하면, 작품의 내용에 가장 합당한 장소를 연구자가 스스로 찾아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오늘날과 같이 지형의 변화가 심각하게 이루어진 경우, 사정은 더욱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방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보존과 개발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구곡문화는 역사적, 인문학적 가치가 매우 높다. 주자의 무이구곡이 한국으로 유입되면서 수많은 한국형 구곡문화가 발생했다. 이것은 문화전파의 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이다. 특히 구곡문화는 서원, 정사 등과 함께 선비문화를 이해하는 독특한 복합문화유산이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대구의 구곡문화도 발굴, 보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보존과 개발은 모순적인 관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두면서 이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현대적 활용성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본다.

영남은 타 지역에 비해 전통문화가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학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구곡문화와 종가문화 등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체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서, 근대의 직선문화에서 탈근대의 곡선문화를 요청받고 있는 오늘날, 대구지역에서도 구곡문화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이면서 체계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 이는 전통문화자원의 가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받아 마땅한 것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徐贊奎, 『臨齋集』
申聖燮, 『鶴菴集』
禹成圭, 『景陶齋集』
禹成圭, 『景陶齋集』
鄭述, 『寒岡集』
朱熹, 『晦庵集』
蔡晃源, 『時軒集』
崔孝述, 『止軒集』
崔興遠, 『百弗巖集』

- 김동준, 「한국한문학사에 표상된 중국 서호의 전개와 그 지평」, 『한국고전연구』 28, 한국고전연구학회, 2013.
- 김문기, 『대구의 구곡문화』, 대구광역시·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4.
- 달성군지편찬위원회, 『달성군지』, 달성군, 1992.
- 星州都氏龍湖門中, 『鋤齋春秋』, 1999.
- 정우락, 「한강 정구의 무흘 경영과 무흘구곡 정착과정」, 『한국학논집』 48,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2.
- 정우락,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방식과 문화공간 만들기」, 『퇴계학논집』 15, 영남퇴계학연구원, 2014.
- 정우락, 「주자 무이구곡의 한국적 전개와 구곡원림의 인문학적 의미」, 『한국의 구곡문화』, 울산대곡박물관, 2010.
- 정우락, 「조선시대 ‘문화공간-영남’에 대한 한문학적 독해」, 『어문론총』 57, 한국문화언어학회, 2012.
- 정우락, 「주자시의 문학적 수용과 문화적 응용-〈觀書有感〉을 중심으로-」, 『퇴계학파유교문화』 57,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5.
- 최원관, 「다사향토사연구회(<http://cafe.daum.net/dasahistory>)」

Abstract

Daegu Gugok Culture and Its Characteristics

Jeong, Woo-rak

This study was designed to promote the systematic understanding of Gugok culture in the Daegu area. For this purpose, the investigator reviewed the overall Gugok culture of Daegu and examined its specific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findings. The previous reports tell that the Gugok were at four places around the Daegu area, but the present study's author estimated that there were Gugok in seven places. The author newly excavated "Munamgugok" by Chae Jun-do and newly included "Seohobyeongsipgok" by Do Seok-gyu and "Geoyeonchilgok" by Chae Hwang-won, which were not included in the previous discussions. The author believed that the Gugoks who formed around rivers deserved a discussion in the history of Gugok culture.

The utmost characteristic of the Gugok culture in the Daegu area was openness, which explains why there were more creative alterations of following Zhu Xi in the Gugok culture of Daegu than just the standard forms of following Zhu Xi as he was. The Gugok culture of Daegu also had a strong determination for modern inheritance given that it had only recently created Gugok. The mixed phenomenon of inheritance and transformation was possible because the classical scholars of Daegu kept a flexible attitude while transmitting the tradition. The phenomenon appears to have a certain relationship with the historical tradition of the created a unique culture by living in the Daegu area along the coast of the Nakdong River and traveling right and left and also up and down.

Key Word: Daegu area, Gugok culture, overview, characteristic, standard form, altered form, complex form, openness, Ganganhak, Nakdong River coast

정우락

소속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자우편 : jwl0412@knu.ac.kr

이 논문은 2017년 8월 14일 투고되어
2017년 9월 3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7년 9월 8일 게재 확정됨.

